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2번째 제안 발표: 오피오이드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해 펜타닐 유사물 금지

주지사, 펜타닐 아날로그를 다른 규제 물질과 동일한 불법 판매 또는 소유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

이번 제안, 연방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펜타닐 유사물을 금지하도록 주 보건 커미셔너에 권한을 부여할 것

주지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 약물 지원 치료법에 대한 접근 확대 제안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과 입원 감소로 이어진 오피오이드 중독 퇴치를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조치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그의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2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르핀보다 50~100배 더 강력한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유사물을 금지하는 법안 — 다른 규제 물질과 동일한 불법 매매 또는 소유 처벌을 받도록 함. 이 법안은 또한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에게 연방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된 모든 새로운 펜타닐 유사물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 정부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치명적인 물질을 실시간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의 약물 지원 치료법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약물 지원 치료는 약물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교육, 상담과 함께 약물을 사용합니다.

"오피오이드 사용 확산은 공중 보건의 위기이며, 이 나라 전역에 걸쳐 너무 많은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고, 10년 만에 오피오이드 사망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마약 딜러는 오피오이드 및 기타 불법 약물을 펜타닐 유사물에 섞어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금지하지 않는 치명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이 두 갈래로 된 제안은 이러한 위험한 펜타닐 모방자를 금지하고 너무 늦기 전에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펜타닐 유사물을 목록에 포함
뉴욕주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펜타닐과 그 유사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100 배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입니다. 단 3밀리그램의 펜타닐은 그 위험성이 헤로인 30밀리그램에 해당하는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외곽에 있는 뉴욕 주민들의 펜타닐과 유사 물질 관련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16년에는 124% 증가했고, 2017년에는 또 28% 증가했습니다. 펜타닐 유사물은 뉴욕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일부 유사물은 연방 정부의 규제 물질 목록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주 규제 물질 목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이 예방에 많은 방해가 되고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현재 펜타닐 유사물이 금지된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한, 목록에 미포함된 펜타닐 유사물을 판매하는 것은 뉴욕주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주지사는 불법적인 펜타닐 유사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검찰 허점을 닫고 펜타닐 유사물이 다른 규제 물질과 동일한 불법 매매 또는 소유 처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 새로운 펜타닐 유사물을 다루는 마약 밀매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경찰과 법 집행 기관에 이러한 약물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법의 최대 범위까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주 보건 커미셔너에게 유사물을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 정부가 시장에 나오는 치명적인 물질을 바로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 약물 지원 치료법에 대한 접근 확대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대한 약물 지원 치료법 또는 MAT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처방하도록 지정된 의료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MAT 처방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려 MAT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주 전역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진료 또는 진료 의뢰서에 대한 기준을 기반으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다루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Cuomo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OASAS)는 원격 보건 및 모바일 클리닉 배치와 같은 혁신적인 진료 제공 모델의 사용을 통해 약물 지원 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 및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사람들을 위해 중독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MAT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는 약물 보조 치료 접근성 확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약물 지원 치료 및 응급 진료 의뢰서 (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and Emergency Referrals, MATTERS) 프로그램의 확장:** Cuomo 주지사는 응급 부서에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MAT를 제공하는 파일럿 확대를 제안합니다. 환자들은 24~48시간 이내에 자신이 선택한 지역 사회 클리닉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도록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 **MAT 원격 의료 프로그램:** 주지사는 응급 부서를 원격 의료를 통해 부프레노르핀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연결하여 MAT 접근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원격 의료 및 모바일 클리닉에 대한 접근 확대:** 주지사는 주 전역 각 경제 개발 구역에 새로운 모바일 클리닉을 하나씩 세워 총 10개의 클리닉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주 전역 소외된 지역 사회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에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주 모든 지역에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지사는 주 전역의 각 카운티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여 원격 의료 능력을 개발하도록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에 지시할 것입니다.
- **교정 환경에서 약물 지원 치료 접근성 확대:** Cuomo 주지사는 현재 메타돈을 제공하는 7개 시설에서 부프레노르핀을 제공함으로써 약물 지원 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도록 교정 및 지역 사회 감독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에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교정 및 지역 사회 감독국에 오피오이드 진료 프로그램(Opioid Treatment Program, OTP) 운영에 대한 국가 인증 및 검증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여 국가 내 최초의 주 교정 운영 오피오이드 진료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중독과의 싸움을 선도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시행했으며, 피해 감소, 예방, 교육,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위기 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원격 의료 확장,,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 직속 헤로인 태스크 포스(Heroin 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 하우스, 확대된 동료 지원 서비스, 진료 센터(Centers of Treatment) 혁신,

약물 사용자 건강 허브, 즉각적 평가와 진료 의뢰서를 제공하는 연중무휴 오픈 액세스 센터 등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후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 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더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급성 통증에 대한 오피오이드 성분 처방약의 최초 처방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기 위한 법안 및 처방사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험 제약 사항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환자 중개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 처방 및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에서 4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서 2,600여 개의 약국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 건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3.46% 감소했습니다.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입원 건수 또한 7.1% 감소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